

# 연천 전곡리 유적

## 세계 구석기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1 개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중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1978년 당시 동두천 주둔 미군이었던 보웬(Greg L. Bowen)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하였다. 1979년 첫 발굴 이후 현재까지 모두 19차례의 조사가 있었으며, 1980년에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들은 1970년대 말까지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유럽의 구석기문화를 찍개와 주먹도끼 문화권으로 구분하였던 모비우스(H. Movius Jr.)의 학설에 배치되는 중요한 증거였다.

### 2 전곡리 유적의 발굴 경위

미국 캘리포니아 빅터 밸리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다가, 미 공군에 입대하여 동두천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렉 보웬(Greg L. Bowen)이 1978년 한탄강 유원지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표에서 채집된 주먹도끼는 서울대학교 김원룡 교수의 감정을 받았고, 다시 프랑스에서 석기를 전공한 정영화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확인되었다.

주먹도끼를 발견한 다음 해인 1979년 3월 전곡리 유적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넓은 면적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전곡리 유적은 크게 5개 지구로 나뉘는데, 주먹도끼를 최초로 채집한 일대를 1지구, 1지구 남쪽을 2지구, 2지구 동편을 3지구, 강 건너 고능리 일대를 4지구, 유적 동쪽 일대를 5지구로 설정하였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된 1~4차 발굴 조사는 여러 대학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중앙박물관이 연합하여 2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5×5m 크기의 시굴 피트를 배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발굴이 진행되었다. 특히 4차 조사 중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대량의 유물이 집중 출토되었다. 1982년과 1983년에 이루어진 제5~6차 발굴조사는 4차 조사에서 석기가 집중 출토된 황갈색 사질점토층의 연결 상황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유적의 지질 및 생물학적인 분석을 위한 시료의 채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6년의 7차 조사는 1지구와 2지구 사적 내에 도로 건설을 위해 지형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자, 문화재관리국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실시한 긴급 발굴에 해당된다. 1991년에 진행된 8차 조사는 많은 석기가 지표에서 채집되었지만, 당시 지구 지정조차 받지 못한 유적 동쪽의 5지구에 대한 발굴로서, 사적 지정 구역 외부의 중요성을 알릴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992년 9차 조사와 1994~1995년 10차 조사는 도로 건설과 확장에 따른 구제 발굴로서 이루어졌다. 모두 1,021점이 출토된 10차 조사에서는 E93N65 피트를 중심으로 유물이 집중 조사되고, 접합되는 석기도 다수 확인되어 주목받았다.

2000~2001년에 이루어진 11차 조사는 전곡리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시굴조사로서, 총 209개의 피트를 조사하여 73개 피트에서 462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현재 유적의 퇴적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E55S20-IV 피트가 이 조사 때 확인되었다. 2004년 실시된 12차 발굴은 2지구의 농협 판매 시설 부지에 대한 조사로, 전체 14개의 피트에서 모두 14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006년 13차 조사와 2008년 15차 조사는 전국선사박물관이 건립되는 부지에 대한 발굴로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아니라 고구려 성곽과 건물의 흔적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2006~2007년에 진행된 14차 조사는 5지구의 임대 아파트 부지에 대한 발굴로, 총 111개의 피트가 설치되었으며, 1,193점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2008~2009년에 이루어진 16~19차 조사는 도로 건설 부지에 대한 구제 발굴이었다. 특히 18차 조사에서 모두 3,486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다량의 주먹도끼가 퇴적층 내에서 확인되었다.

### 3 전곡리 유적의 층위 및 출토유물

1979년 전곡리 유적에 대한 첫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40여 년간 모두 19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각 조사 지점에 따라 퇴적층의 깊이가 1m 미만에서 8m 내외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점토층 아래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는 지점도 있고, 점토층으로만 이루어진 지점도 존재한다.

전곡리 유적의 대표적인 층위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2지구의 E55S20-IV 피트를 중심으로 층위를 살펴보면, 기반암인 현무암 위로 회청색 실트층, 회황색 실트층, 명황갈색 실트성 점토층, 명갈색 미세 사질점토층, 갈색 미세 사질점토층, 갈색 점토층, 황갈색 점토층, 갈색 점토층, 적갈색 점토층, 암갈색 점토층, 갈색 점토층, 적갈색 점토층, 갈색 점토층, 표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층위를 크게 나누어 보면, 현무암반 상부에 실트성 퇴적물, 사질점토층, 점토층이 쌓여 있는 양상이고, 점토층에서

모두 5개의 토양층이 확인된다. 물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지점마다 세부 층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다만 전곡리 유적의 전체적인 퇴적 양상은 용암이 흐르다 식어 형성된 현무암 대지 위에 수성 퇴적물인 모래층이 쌓인 후, 그 위로 비탈 퇴적 기원 혹은 바람 퇴적 기원의 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약 9,400점이고, 지표에서도 그동안 상당량의 석기가 채집되었다. 이들 석기는 유적의 여러 층위에서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적갈색 점토층과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조사되었다.

전곡리 유적의 석기는 대부분 임진-한탄강 유역의 강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규암 또는 석영 자갈돌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물론 다른 돌감인 현무암, 편마암, 응회암 등도 소량 확인되고 있는데, 규암 및 석영과 마찬가지로 유적 인근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곡리 유적을 비롯한 임진-한탄강 유역의 유적에서는 사용할 날을 뚜렷하게 다듬어 제작한 손질 석기가 드물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발굴 지점과 층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곡리 유적의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석기 가운데 손질 및 잔손질이 베풀어진 석기는 5~15%이며, 몸돌과 격지, 크고 작은 부스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손질 석기 가운데 대형 석기로는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가로날도끼, 찌개, 여러면석기 등이 있고, 소형 석기는 굽개, 톱니날, 홈날 등이 있다.

전곡리 유적의 가장 대표적인 석기는 무엇보다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할 수 있다. 이 주먹도끼는 1978년 발견 당시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유물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유럽의 구석기 문화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유무 여부로 2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였던 모비우스(Hallam L. Movius)의 학설, 일명 모비우스 라인(Movius Line)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고, 전곡리 유적의 중요성이 세계 고고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주먹도끼 중에는 몸체의 양면이 모두 손질된 석기도 있지만, 한쪽 면만 손질되어 제작된 것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평면 형태는 대부분 아몬드형 또는 침두형이고, 두터운 몸체의 표면에 비교적 크게 패인 격지 흔적이 있으며, 몸체의 아랫부분이 손질되지 않은 채 자연면으로 남아 있어, 아프리카 상고안(Sangoan) 시기의 주먹도끼와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다. 이와 같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이지만, 손질이 최소한 이루어지고, 형태적으로 정형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사용된 돌감에 따른 기술적 제약성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른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된다. 주먹도끼를 비롯한 주먹찌르개, 가로날도끼 등 대형석기의 제작에는 돌망치를 이용한 직접떼기 기술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큰 격지를 떼어낼 때 모루떼기 방식도 사용되었다.

전곡리 유적의 퇴적층 내에서는 아직까지 전형적인 돌날 및 좀돌날석기 제작기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층위에 따른 석기 제작기술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던 전곡리 유적의 성격을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퇴적층에 따른 석기 제작기술의 변화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 4 전곡리 유적의 형성 시기

전곡리 유적을 필두로 임진-한탄강 유역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23곳에 이른다. 그 시기도 80만 년 전에서부터 1만 5천 년 전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연대 측정값이 도출되었다. 이들 유적에서 얻어진 연대 측정 방식의 종류에는 방사성탄소 연대를 비롯해 포타슘-아르곤 연대, 피션트랙 연대, 열발광 연대, 광발광 연대, 베릴륨-10 연대, 화산재 연대 등이 있다.

전곡리 유적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여러 방식의 절대 연대 결과와 각기 다른 지질학적 해석들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들 주장 가운데 전곡리 유적의 형성 시기가 전기 구석기 시대(30~20만 년 전)와 후기 구석기 시대(약 4만 년 전)라는 매우 상반된 견해가 대립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 전곡리 유적의 연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연대 측정과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현무암 연대값을 상한선으로 해서 상부 퇴적층까지의 퇴적 속도는 일정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곡리 유적의 최하부 유물층은 약 30만 년 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곡리 유적의 퇴적층 연대가 얻어지기는 하였지만, 결국 유적의 형성 시기를 추정하는 출발점은 구석기 퇴적층의 하부에 있는 현무암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한탄강 일대에서 두 개의 다른 범위의 현무암 연대가 얻어졌는데, 전곡리 유적의 현무암의 연대는 약 50만 년 전 전후로 측정된 반면에, 은대리 부근의 차탄현무암 연대는 15만 년 전 전후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지역 안에 상당한 연대 차이를 보이는 현무암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곡리 유적의 표준 층위로 활용되고 있는 E55S20-N 피트의 지표 아래 약 30cm의 첫 번째 토양층 하부(해발 59.3~59.6m)에서 약 2만 5천 년 전에 분출된 아이라-탄자와 화산재(AT 화산재)가 검출되었다. 이보다 약 70cm 아래(해발 58.6~58.7m)에서 약 9만 5천 년 전의 기카이-토주라하라 화산재(K-Tz 화산재)로 추정되는 입자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 아래의 퇴적물은 이보다 오래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TT-OSL 연대측정 결과, 해발 58~59m의 적갈색 점토층에서 12만 6천 년 전으로 나타났으며, 그 아래 해발 57~56m의 퇴적층에서는 18만 2천 년 전으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전곡리 유적의 형성 시기와 연대를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대 측정 방식이 시도되고, 여러 해석과 주장이 있었으나,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석기가 출토되는 층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대 측정값을 얻어내고, 그 연대가 퇴적층의 지질적인 형성 과정 및 석기의 제작 기술상 발전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유적의 형성 시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